

대지에 새겨진 지구의 역사



스가타미노이케 (姿見の池) 연못에서 바라본 아사히산 (旭岳)

충돌하는 대지와 화산

홋카이도 (北海道) 의 중앙부에는 남북으로 변성암지대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. 이것과 서쪽의 이시카리 (石狩) · 유우바리 (夕張) 지역의 지질단면이 서쪽으로 크게 기울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홋카이도는 예전에 두개의 육괴 (陸塊) 였으며 , 동쪽의 북아메리카 지각대 위의 섬이 서쪽의 유라시아 지각대 위의 섬과 충돌하여 합쳐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. 중앙부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

선 기타미 (北見) 산지와 히다카 (日高) 산맥은 이 충돌에 의해 융기한 산맥이다 . 한편 , 태평양 지각대는 쿠릴열도에서 성장하여 홋카이도 중앙부를 거의 동서로 가르는 치시마호 (千島弧) 를 만들어 이 선상에 활발한 화산활동대를 만들어냈다 . 다이세츠잔 (大雪山) 은 이 두 개 선의 교점 위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높은 산군이다 .

활발한 화산활동

이 국립공원은 이시카리 (石狩) 연봉 이외는 비교적 새로운 시대의 화산활동에 의해 태어났다 . 활동중의 화산은 아사히산 (旭岳) , 토카치산 (十勝岳) 과 히가시다이세즈마루야마 (東大雪丸山) 화산 3개이며 , 특히 토카치산 (十勝岳) 은 화산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. 그러나 , 이전에는 시카리베츠 (然別) 화산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으며 , 토카치미즈마타 (十勝三股) 의 분지 지형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곳에서 흘러내린 화쇄류 퇴적물이 확인되면서 칼데라인 것이 증명되었다 .

토카치산 (十勝岳) 의 활동

토카치산 (2,077m) 은 최근에도 가끔 분화를 반복하고 있는 활동적인 화산이다 . 이 산은 약 100만년 전부터 분화 활동이 있었던 것이 산기슭에 넓게 분포하는 화쇄류 퇴적물의 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다 . 근세의 활동은 약 3,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, 기록에 남아 있는 활동은

19세기 이후부터이다 . 20세기 이후에는 1926년 , 1962년 , 1988~89년 3회의 기록이 있다 . 1962년의 분화는 규모가 크고 , 연기가 고도 1만 2천m에 이르러 , 당시 화구 내에서 조업하고 있던 유황광산의 종업원 5명이 사망한 참혹한 기록이 있다 . 1988년의 분화는 소규모로 산시습의 피해는 없었다 .



다이세츠잔 (大雪山) 에서 보는 북극권 한랭한 기후조건에 있는 다이세츠잔의 고산대에는 북극권에서 보이는 현상이 있다 . 영구동토란 토양과 암석이 지하 깊숙이까지 연중 동결되는 것이다 . 다이세츠잔에서는 표고 2,000m 이상의 고지에 영구동토가 있다 . 또 , 다카네가하라 (高根ヶ原) 에는 동결에 의해서 이탄이 섬모양으로 쌓인 지형 (파르사) 이 있는 것 외에 , 흙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는 동안에 입자의 크기에 따라 그물 모양이나 선형 등으로 정렬되는 구조토 현상도 볼 수 있다 .

토카치산 (十勝岳) 분화구에서 바라본 아사히산 (旭岳)